

전남교육청, 코로나19 '긴급 인력 지원'

평가 통해 학생의 성장·발달 지원

담양교육청, '초등과정중심평가' 역량강화 직무연수

시군 교육청 한시 인력 2명씩 추가 배치

"업무량 증가 직원 피로 가중 상황 감안"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방역 및 감염병 관리 등

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직원들의 피로감 또한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특히 업무량이 늘어난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등 6개 지

역 교육지원청에 전담 공무원 1명씩을 오는 연말까지 한시 배정한다. 또 나머지 16개 지역에는 신규 임용후보자 가운데 실무수습 인원 1명씩을 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청사 입구 발열체크와 청사 관리를 위한 일용인력도 1명씩 추가 배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 지원되는 추가인력은 전남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배

치돼 방역 및 감염병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긴급 인력 지원을 지시한 이기봉 부교육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남 교직원들을 돕고, 효과적인 방역과 감염병 관리를 위해 긴급 인력 지원에 나섰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인력 지원 기간 연장 및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은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난 16일 관내 9교 초등학교 44명을 대상으로 과정중심평가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발맞춰 학생의 배움과 올바른 성장을 돕고 학생 평가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고자 도 단위 특수분야 직무연수로 매년 운영되고 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미리 이수한 원격연수를 통해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과 평가의 변화

이해, 학생평가의 방향, 과정중심평가의 특징 등을 학습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연수는 실습형 집합연수로써 현재 맡고 있는 학년의 교과 성취기준 분석, 교육과정 재구성 및 통합을 통한 평가 요소 결정, 채점기준표 작성 등의 분임실습을 통해 효과적인 평가도구를 개발해보고 지도방안을 및 다양한 현장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담양초 박미영 교사는 "개인적으로 2018년 원격연수를 통해 이미 접했고 현장에도 안착되었으나 함께 모여 학생 활동 중심 수업에 맞는 평가도구를 직접 제작해보니 새롭고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다. 학생의 바람직한 학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 일관성 있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담당=박종영 기자

순천대 '수소가스터빈 연소기 개발 및 복합발전 실증 사업화'

13개 기관 참여 60개월간 진행...193억 투입



최근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열린 '수소 가스터빈 연소기 개발 및 수소터빈 실증사업 협력 협약 체결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허재선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임종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장, 안원기 경남 테크노파크 원장, 안관식 한국남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 박홍욱 두산중공업 파워서비스BG장, 임다두 한국남동발전 심천포발전본부장, 박상진 한국기계연구원장, 이승수 한울항공기계 대표)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가 최근 두산중공업 경남 창원 본사 계

스트하우스에서 13개 산·학·연과 "수소가스터빈 연소기 개발 및 복합발전 실증 사업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두산중공업(주), 한국기계연구원, (재)경남테크노파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울항공기계(주), 한국과학기술원 및 순천대학교 외 5개 대학(서울대, KAIST, 강릉원주대, 세종대, 인하대) 등 전체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수소연료를 통한 전력생산의 핵심기술인 '100% 수소가스터빈 연소기 개발'을 위해 국비 193억을 투입하여 60개월간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6개 발전공기업 현장(발전소)에서 실증을 거쳐 2028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형 국책사업 수행을 위

해 협력한다. 가스터빈 연소기술은 발전(發電) 분야 외 미사일, 항공기 및 우주발사체의 핵심기술인 관계로 국방산업, 우주산업과도 직결되는 국가 차원의 전략 기술이라 선진국에서도 극도의 보안 유지와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로 순천대학교에서는 우주항공공학과 이기만 교수 연구팀이 기술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8개 기관의 대표들이 모인 협약식에 6개 참여대학을 대표해 유일하게 참석한 순천대학교 허재선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발전공기업 외 민간 발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에너지 관련 대형 국책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추진 및 관련 인력 양성의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장흥동학농민혁명' 현장 찾아가다

'지역 문화인 연계 문림·의향의 일 계승교육' 운영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왕명석)은 작년 2019년에 이어 2020년 올해도 '지역 문화인 연계 문림·의향의 일 계승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장흥동학농민혁명' 프로그램은 장흥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알아보고 동학 현장 표지판을 만들고 설치하는 활동으로 장흥초, 안양중에서 6~7월 동안 6차시 각 3회 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 '장흥동학농민혁명' 프로그램은 장흥동학농민혁명 기념 사업회에 소속된 박형모 선생님께서 꾸준히 연구해 온 동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어,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6차시 교육과정을 재구성 ▲장흥동학농민혁명의 배경과 전개과정 ▲장흥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인물과 장소 ▲학교 중심의 동학의 현장

을 알아보고 표지판 만들어 설치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흥초에서 이루어진 '장흥동학농민혁명' 프로그램은 지역 문화인과 함께 ▲장흥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 ▲장흥 동학 인물과 장소에 대해 알아보고 ▲장흥동학농민혁명 기념탑과 기념관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직접 만든 표지판을 기념관에 기증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장흥교육지원청 왕명석 교육장은 "학생들이 장흥동학농민혁명의 인물과 장소에 대한 답사와 표지판 연구에 온 동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어,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6차시 교육과정을 재구성 ▲장흥동학농민혁명의 배경과 전개과정 ▲장흥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인물과 장소 ▲학교 중심의 동학의 현장

광주 계수초등학교, 24일까지 원격수업 전환

광주 모든 학교 1/3, 2/3 등교·원격수업 병행

광주시교육청이 계수초등학교에서 남매(3학년·6학년)가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7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계수초에 대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계수초 재학생 남매로 인한 n차 감염을 우려해 지난 18일 계수초 재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37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지

역감염 확산에 따른 위험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광주시 및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계수초 재학생, 교직원에 대해 26일까지 일체의 외출을 금지하는 등 자가격리에 준하는 자율격리를 시행했다. 계수초는 20일부터 24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긴급돌봄도 시행하지 않는다. 교직원들은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모두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20일부터는 광주 관내 전체 특·초·중·고등학교에 대한 1/3, 2/3 병행수업을 여름방학 전까지 진행한다. 17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던 북구 관내 특·초·중학교(특수학교 2개교,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27개교)도 20일부터 1/3, 2/3 병행수업으로 전환한다. 다만 광주의 모든 고3은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광주 관내 전체유치원의 경우 20일부터 1/3 이내는 등원해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2/3 이내는 집

에서 원격수업을 하는 병행수업을 실시한다. 다만 전체 원생이 10인 이하인 유치원은 정상적으로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한편 장흥구 교육감은 19일 광주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염중함을 감안해 '광주교육가족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장교육감은 호소문을 통해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계수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7월20일부터 24일까지 전학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고, 학생과 교직원은 7월26일까지 자가격리에 준하는 자율적 격리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